

공공·금융 'AI 에이전트' 기술혁신... SaaS 차별화 추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ITS 기업 상반기 결산

① 삼성SDS

기업용 AI 에이전트 본격 서비스 결과 생성 넘어 복합적 업무 수행 "하반기, 클라우드 등 사업 확장"

올 상반기 국내 대표 ITS(정보통신 서비스) 기업들은 AI(인공지능)와의 공진화를 선언하며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냈다. 삼성SDS는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업의 업무 혁신을 주도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하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캠퍼스에서 '생성형 AI 미디어데이'를 열고 핵심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를 알리며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지금은 AI가 대량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생성하고 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최근 AI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기술 경쟁의 무게 중심이 모델 개발에서 AI 에이전트 응용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SDS는 기업용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가장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캠퍼스에서 열린 '생성형 AI 미디어데이'에서 발표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의 생성형 AI 플랫폼 '패브릭스'는 기존의 단순한 결과물 생성 기능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며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해 복합적인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준희 대표는 "삼성SDS는 지난해 출시한 업무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에이전트로 발전시키면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공공과 금융 시장을 개척해 리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SDS는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과 국

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 패브릭스를 적용해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에서 AI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300여 기관, 72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에 자사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 코퍼일렛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9월에는 업무데이터 기반 할 일 알림을 주는 '브리핑 에이전트'와 업무 문의의 자동 응답 기능을 갖춘 '앤서링 에이전트'를, 오는 12월에는 상황별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는 '큐레이팅 에이전트'와 음성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해주는 '보이스 에이전트'를 선보

일 방침이다.

삼성SDS는 기업의 성장에는 '에코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 및 컨설팅,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SaaS의 차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차별점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MSP), AI 플랫폼,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SCP)를 모두 보유하고 이를 통합해 '탑 투 바텀, 레프트 투 라이트'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꼽았다.

'유럽의 오픈AI'로 불리는 프랑스 기업 미스트랄AI의 지분 투자에 대해서는 "미래 기술이 관건이면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투자하는 회사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미 삼성전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획 설계 단계 중으로,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 준공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참가 의향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모 지침서가 나오면 다시 논의해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사 매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공정위 2024년 기준 66.7%)에 대해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은 "한국 시장을 잡고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

공급망관리(SCM) 소프트웨어 업체 엠로를 인수, 함께 글로벌 SaaS 솔루션을 출시해 사업을 하는 중이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কে도에 오르면 대외 사업 비중, 더 나아가서는 손익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비관계사 사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기업자원관리(ERP) 및 공공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와 손잡고 클라우드 ERP 전환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AI 플랫폼과 브리티 워크스, 코퍼일렛 등을 통해 공공 및 금융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비관계사 매출 비중을 현재보다 10% 이상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올 1분기 삼성SDS는 매출액 3조 4898억원, 영업이익 2685억원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6529억원을 기록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 헬로스퀘어는 2만 200개사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금년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SDS는 이러한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클라우드,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서비스, 헬로스퀘어 등을 토대로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통신사, 해킹사태 '화들짝'...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 속도

LG U+ '퀀사' 초대 의장사 선정 SKT 차세대 보안 제품 'Q-SDP' 공개 KT 양자 VPN 등 기술·제품 전시

양자컴퓨터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통신3사가 '해킹 불가능' 기술로 불리는 양자암호통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은 광자의 양자 상태를 활용해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망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양자키분배(QKD) 기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양자컴퓨팅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3사는 양자암호통신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통신업계가 양자통신과 양자암호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양자컴퓨터가 기존 공개키 기반 암호(RSA, ECC 등)를 무력화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해킹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양자암호 기반 차세대 보안망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양자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민간 연합체 'QuINSA(퀀사)'의 초대 의장사로 선정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영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미래양자융합센터(QCI)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로, 양자통신·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양자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민간 연합체 'QuINSA(퀀사)'의 초대 의장사로 선정됐다. 주임계 LG유플러스 유선사업부장이 지난 25일 퀀사 국제총회에서 의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센서·컴퓨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표준화를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퀀사의 의장을 맡은 LG유플러스 주임계 유선사업부(상무)는 "양자 기술의 국제표준화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퀀사의 의장사로서 실증된 기술력과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사 선정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내용은 최근 열린 '퀀텀코리아 2025'에서도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통신 3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코리아 2025'에 참가해 핵심 기술을 전시

했다. 퀀텀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양자 과학기술 전문 박람회로,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조망하는 행사다.

SK텔레콤은 양자 연합체 '엑스퀀텀'의 멤버사들과 함께 부스를 구성해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엑스퀀텀은 지난 3월 SK텔레콤이 양자 분야 핵심 기술 및 부품 보유 기업들과 함께 설립한 연합체로, 에스오에스랩, 엑스게이트, 우리로, 케이씨에스, 노키아, IDQ 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차세대 가상사설망(VPN) 보안 제품 'Q-SDP'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SDP) 기술에 양자내성암호(PQC)를 결합한 원격 접속 보안 솔루션이다.

KT는 '양자가 여는 새로운 시대, K

T가 연결한다'를 주제로 부스를 꾸려 양자 통신장비의 동작 원리를 시각화하고, 해킹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양자암호통신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전용회선, 양자 VPN 등 자사 보유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외의 14개 파트너사와 협력해 개발한 다양한 양자암호통신 장비도 함께 전시했다.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기술을 실물 업무 환경에 접목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했다. 사무실과 원격근무 환경을 양면 구조로 구현한 공간에서,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 'U+SASE'와 PQC 기반 인증 솔루션 '알파키'를 중심으로 실시간 보안 흐름과 인증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U+SASE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보안관제를 통합한 제로트러스트 보안 플랫폼이며, 알파키는 생체 인증, 패스키, PIN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반 2차 인증 솔루션이다. 계정 생성부터 퇴사자 접근 차단까지 자동화된 보안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발간한 '양자정보기술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통신 시장은 지난해 5조209억원에서 연평균 25.6%씩 성장해 2030년에는 24조736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양자통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66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을 때 보이 스피싱·스미싱 위험 알림을 제공하는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감염 사실을 안내할 수 있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 이용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카카오톡 'LG유플러스 악성 앱 주의 알림' 계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 금전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서현 기자

엔씨소프트 '리니지M' 중국 서비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중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판호를 획득했으며, 현지 서비스명은 '천당: 혈통'이다.

게임은 모바일과 PC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며, 퍼블리싱은 상하이 사오밍타 이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사가 맡는다.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